

학생의 날 행사

길라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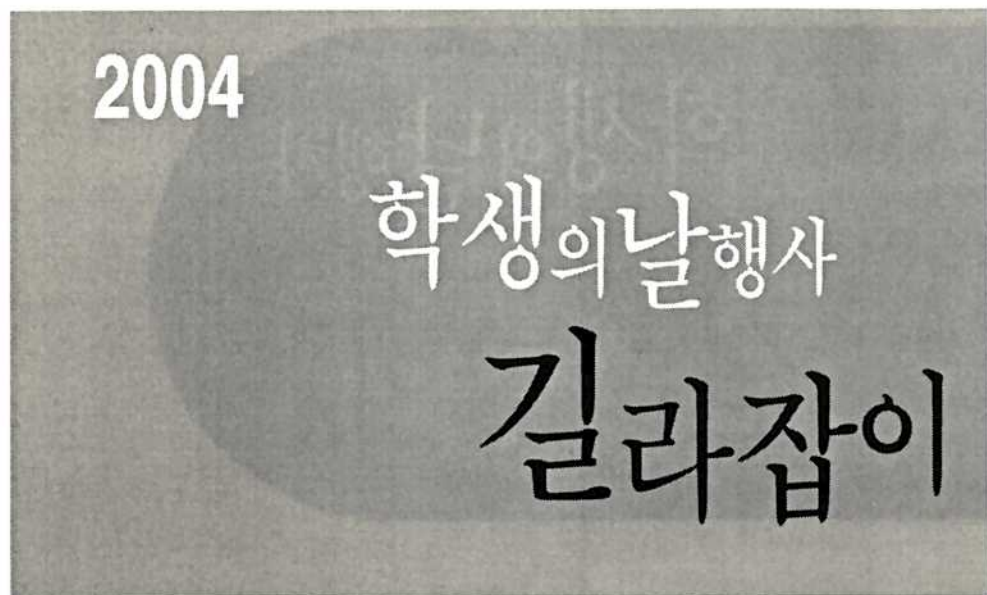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의날행사
길라잡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1. 학생의 날 기념행사의 의의	5
2. 학생의 날 기념행사 준비는 이렇게 하자	9
3. 학생의 날 행사 사례	19
3-1. 문화·공연마당	20
3-2. 참여·전시마당	31
3-3. 토론회·발표회	49
4.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제안	54
[참고자료] 2003년 전교조 학생의 날 행사 일정	56
[참고자료] 학생회 주최 학생의 날 행사 사례	59
[참고자료] 학생의 날 행사 참고 사이트	68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촉매제”

김진숙
(사)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이사

학생의 날은 일제에 침략당한 나라의 운명을 구하고 일제에 의해 자행되는 식민지 교육에 저항해서 싸운 자랑스러운 학생들의 항거를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나서 싸웠던 학생들의 주체적이며 고귀한 정신을 기리는 이날은 그 저항적 성격으로 인해 독재정권시절 ‘학생의 날’ 자체를 없앴고 소수의 뜻있는 학생들이 그 기념행사 자체를 지켜오는 것으로도 투쟁을 해야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학생의 날은 제정하였지만 학생들에게 그 의의에 대해 가르쳐 주거나 기념행사를 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기보다 냉정한 경쟁사회에 먼저 길들여지고 ‘절망’을 먼저 배우게 되는 현실 속에서 학생의 날의 의의를 살리고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 속에 학생의 날의 고귀한 정신을 살리는 것이며 나라를 사랑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활동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치열한 투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다 풍부하게 <학생자치활동>을 넓혀나가고 활성화하며, 권리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학생의 날 행사자료집 발간으로 이런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 곳곳으로 퍼져서 열매 맺는데 훌륭한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생의 날을 통해 교육 바꾸기

이 문 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청소년위원장

학생의 날 하면 분회원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 위해 새벽 교문 지킴이를 자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장선생님은 쓰레기를 주의하라고 잔소리 하셨고, 교감선생님은 허락도 없이 사탕을 나눠줬다고 뭐라 하셨지만 하루 종일 아이들은 사탕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학생의 날인 줄 태어나서 처음 알았다는 한 녀석은 사탕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날을 노는 날로 만들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날 아이들은 몇몇 샘들이 준비한 O X 퀴즈와 가로세로 퍼즐 등을 풀며 학생의 날의 의미를 새겼고, 역사 샘들은 전문성을 살려 좋은 교재로 쓰시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날은 말 그대로 학생들의 날이며 일제에 학생의 정의로운 힘을 과시한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에서 학생의 날은 문혀져 있거나 형식적인 기념식을 하는 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교조와 청소년 단체들의 노력으로 지역에 학생의 날 행사가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편차도 크고 공유도 쉽지 않아 아직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행사가 행사로만 마무리 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날을 학생의 날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청소년의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가치의 공유에 우선을 두고 누구나 따라하면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역의 선생님들과 청소년활동가, 학생·청소년들이 직접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 발간에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의 백성군 활동가께서 많은 시간과 땀으로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시간의 노력이 학생의 날이 학생의 날 다워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1. 학생의 날 기념행사의 의미

11월 3일 학생의 날은 식민지 사회의 불합리함을 몸으로 느끼던 학생들이 그 불합리함을 만천하에 고하고 바로잡고자 거리로 뛰쳐나섰던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 당시 학생들은 '일제의 굴레에서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교육을 철폐하라' 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각종 시위와 동맹휴학을 벌이며 일제에 맞섰다.



구호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광주학생운동은 단순히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것에서 벗어나, 투쟁대상을 명확하게 일본제국주의로 설정하고 싸웠던 것으로, 이는 명백한 항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 당시 현실에서 학생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는 바로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고, 나이가 어리고 해서 결코 조국과 민족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 또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언제라도 거리로 뛰쳐나올 용기가 있는 주체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70여년이 지난 지금 학생의 날은 잊혀져 있다. 몇 년 전부터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학교에서 학생의 날에 대한 행사를 치르는 학교들이 있으나, 아직 소수에 그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며, 학생의 날의 기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생의 날을 다시 학생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이고, 그날 선배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 학생들의 요구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학생·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는 무엇일까? 그들 스스로가 느끼는 우리 학교와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학생의 날을 진정으로 학생들 품으로 돌려야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 서울의 청소년단체 '희망'과 전교조가 함께 주최했던 74돌 맞이 학생의 날 행사 <청소년이 주인이다>는 청소년들의 현재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념행사였다. 한 달여 동안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어졌다.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언제나 말하고 있고, 또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부정부패와 썩은 정치>

-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하는 힘 있는 정치가들이 국민의 믿음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근거 없는 모략으로 각 당들의 비리를 폭로하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 - 정치문제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리게만 생각했던 청소년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존재입니다.

<높아져만 가는 사교육비>

돈이 있는 자들이 유리한 우리 교육의 현실.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거나 중산층의 가정에서는 고액과외나 비싼 학원비를 대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사교육비의 증대를 막기 위한 방법론 공교육의 부활과 학원비의 최고 금액을 정해 놓는 방안으로 나가면 조금이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급식문제>

학생의 편리함을 위해 실시되었다는 급식제도가 지금에 와서는 학교와 급식업체간의 비리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여 만들고 - 이런 일들이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도대체 학생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학벌 위주의 사회 현실>

대한민국의 학생은 학벌 위주의 사회 현실에 가로막혀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 대학과 공부를 강요하는 사회 현실은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와 교육과정>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자신 있게 발표한 7차 교육 과정의 첫 세대입니다. 하지만 수능능력시험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정보에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입시제도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한 취지를 가진 새로운 입시 안은 학생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똑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에 불과합니다.

<용의복장 두발규제>

교문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선생님의 '단속'을 피하고자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 모양과 용의복장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 또한 우리는 더 이상 학교 측의 관리 편리성 때문에 이용되는 용의복장제지와 두발 규제에 반대합니다.

<꼭 짜여진 시간표, 등교시간>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 출석부에 도장을 찍고 0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어김없이 비효율적인 수업이 또 시작이 된다하며 자리에 힘없이 앉습니다. 수업은 시작됩니다. 잠에 취해 있는 친구,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는 친구, 이제는 익숙할 때도 됐을 만 한 배고픔에 우는 친구, 모두가 0교시를 그렇게 강제 속에서 의미 없이 흘러 보냅니다 -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개성과 적성을 위하여 마련된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 저희는 사회의 문제도 바라보고 싶고, 저를 위한 개인의 시간도 보내고 싶습니다.

-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별 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입시 앞에 무기력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청소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교육현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지적했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 (중략) 우리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것은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들이 그 불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불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학창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 했다. 그런 와중에서 벌어진 설문조사는 우리들이 평소에 쌓여온 불만을 터트릴 좋은 기회였고 수단이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무시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전부터 우리는 0교시나 등교시간, 두발자유에 대해서 많이 외쳐왔지만, 처음에는 바뀔 듯이 보이면서 결국 변하는 것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이 우리의 사회이다. 우리가 하나의 발언권을 가진 구성원이기 보다 하나의 공부하는 학생으로만 생각되

온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이다.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우리 청소년의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그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 주는 것, 우리는 이번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이점만큼은 꼭 강조하고 싶다.

- 서울지역 74동 학생의 날 맞이 '청소년 10대요구' 기자회견 내용 중

자신과 학교와 사회에 할 말이 많은 지금의 청소년들. 마치 70여 년 전 선배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선거권을 18세로 낮추자는 학생들, 머리를 자르지 말라며 NO CUT 운동을 벌이는 학생단체, 발전적인 학생회 활동을 벌이자는 학생회 연대모임, 미션 스쿨의 강제 종교의식에 반대해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학생, 0교시폐지 및 강제 자율학습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활동 등 그 외에도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바꾸어내려는 활동들이 현재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학생·청소년들이 느끼는 현실이요, 주체적인 요구이며, 학생의 날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런 청소년들의 요구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의 날 기념행사는 70여 년 전 학생운동에서 보여주었던 교훈을 통해, 학생·청소년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는 적극적인 주체의 장, 참여의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학생의 날을 오늘날에 맞게 다시 찾고, 살리는 일인 것이다.

2. 학생의 날 준비 이렇게 하자

1. 방향 세우기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듯이 방향만 잘 세우면 학생의 날 준비의 반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방향을 세울 때 늘 염두에 둘 점은 준비하는 모든 주체들이 가능하면 함께 결정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에서 지금까지 고민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거의 비슷한 고민과 지향을 갖고 학생의 날 행사와 청소년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일단, 학생의 날의 의미가 살아야 하며, 학생·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과감하게 그들과 함께 준비하게 하자. 멋있는 축제보다 배움이 있는 난장이 낫지 않을까?

[사례 1] 순천 청소년문화축제의 방향성

- 청소년 문화 행사를 통해 교육 각 주체들의 이해와 소통, 공감의 장을 만들어간다.
- 청소년 축제를 추진하는 전 과정을 통해 순천 지역 학생 문화를 결집하고 활성화시킨다.
- 각 학교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어온 학교 축제의 결집의 장을 마련한다.
-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각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산시켜 지역 청소년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 축제학생기획단을 구성하여 기획과 준비, 진행 등의 전 과정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한다.
- 연중기획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성격별로 분산·집중의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축제 홈페이지(www.teenfestival.com)를 운영하여 축제에 대한 홍보와 신청/접수는 물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여 온라인상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를 구현시켜 나간다.
- 공연, 참여, 전시 마당 등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축제가 되도록 한다.
- 세부 프로그램의 선정 시 기성 문화의 모방을 지양하고,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살린 참신한 청소년 문화축제가 되도록 한다.
-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 등 각 교육 주체들의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축제 준비 전과정에서 학생 자치 활동·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여 실행한다.

[사례 2] 고성 청소년문화한마당의 목적

- 불의에 항거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청소년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한다.
- 청소년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복돋운다.
- 지역 청소년 문화와 건전한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킨다.
-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문화 활동의 명맥을 이어 나가도록 자생력을 길러준다.
-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외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사례 3] 청주 청원 청소년문화한마당 기본방향

-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간다.
- 타율과 강제를 멀리하고, 청소년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한다.

[사례 4] 경주 학생의 날 기념 고교생 동아리 발표 회의

-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 주체임을 깨닫게 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시민역량을 키운다.
-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마련한다.
- 21세기 문화 중심의 시대에 살아갈 세대로서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한다.
- 경주의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잇는 문화 일꾼을 키운다



2. 조직 세우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조직을 세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판을 짜고, 학생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거나 심부름을 하는 정도가 대부분 지역의 상황이다. 방향은 학생의 날 행사의 의의에 맞게 학생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잡더라도 현실은 쉽지가 않다. 일단,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입시구조가 있고, 전교조와 청소년단체에 대한 견제가 작용한다. 학생들도 학생의 날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축제 체험이 부족해 충분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획력을 발휘하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에 세워 기획하고 운영하는 지역들의 사례에는 배울 점이 많이 있다. 물론 서로 다른 상황이 있기에 하나의 모범이 모두의 표준이 되긴 어렵다. 하지만 경험의 소통은 실천을 낳는다.

[사례 1] 대구 청소년 기획운영단

대구에서는 동아리박람회, 부문별 연합행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획운영단이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행사기획, 실무준비, 진행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율적인 청소년 문화축제를 만들었다.

■ 구성현황

구 성 분 야	참 여 인 원	주 요 활 동 내 용
동아리 박람회	미술	3개교 12명 동아리박람회 공연무대배경 제작
	시문학	4개교 11명 유랑문학퀴즈 기획 및 진행
	방송	7개교 10명 오픈 스튜디오 기획 및 진행
	천문	14개교 14명 천문관련 이벤트 기획 및 진행
	발명	5개교 5명 발명동전시 기획 및 화학 실험 이벤트 진행
부문별 연합행사	수화	10개교 17명 연합콘서트 기획 및 연합공연진행
	연극	9개교 14명 창작단막극제 기획 및 진행
	영화	5개교 21명 영화제 기획 및 영화이벤트 진행
	풍물	11개교 15명 풍물연합한마당 기획 및 풍물판굿, 설장구 진행
토론마당 청소년 토론회	만화	4개교 11명 만화거리 기획 및 창작애니메이션 제작
	락	13개교 13명 청소년 락페스티벌 기획회의
		자유토론회 주제선정 및 진행

[사례 2] 울산 청소년 기획 운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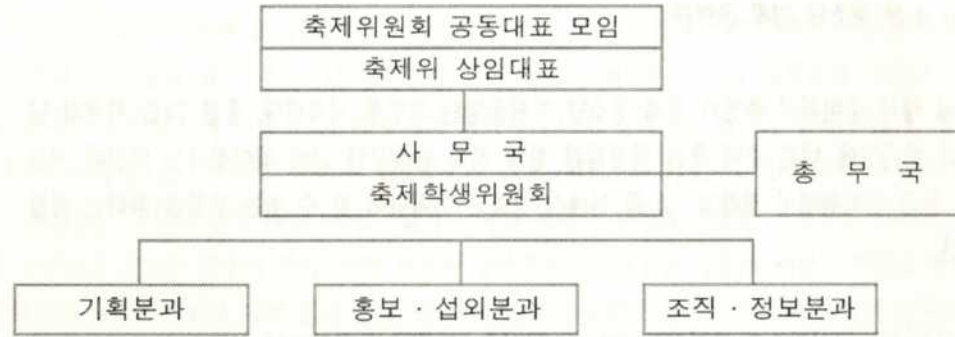
학생의 날 행사 준비위의 출발과 함께 청소년 기획운영단 고민을 시작했다. 울산 74동 학생의 날 기념 동아리 한마당에 대한 준비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해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고, 큰 틀은 준비위에서 정하고, 그 틀 안에서 청소년 기획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는 역할 규정을 했다.

청소년 기획단을 공식적으로 모집하였지만, 그 구성은 '함께'에서 활동하던 친구들과 준비위에 참여하던 선생님의 학교 학생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논의의 결과물이 참여마당의 청소년 자유발언대, 7942차 판매, 쪽자 만들기, 스텐살이였고, 청소년 기획단과 분리된 면이 있지만, 학생의 날 기념식의 '청소년 선언'이었다. 그들의 힘을 통해서 '청소년 선언문'이 선언되었고, 행사를 뒤에서 이끌어 가는 자원봉사단이 조직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학생의 날 행사의 준비가 그들의 몫으로 넘어오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 일정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 행사 전반기획은 주로 기획단선생님들이 하였지만 늦게나마 청소년기획단이 운영됨으로써 청소년 기획단의 가능성을 보였다. 행사장 전체에서 당일 행사준비는 청소년자원봉사단이 거의 많은 일을 해내었다. 파란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행사를 준비하던 청소년들의 모습은 아름답기까지 하였다.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두 달 전에 청소년기획단이 구성 되어야한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학생의 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사례 3] 순천 학생청소년 조직

특히, 순천에서는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하고 6회에 걸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내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아리 대표자 모임 구성, 중고학생대표자회의 구성을 통해 실무역량과 의견 수렴, 홍보, 의견반영의 통로도 만들었다. 학생청소년들의 내용적인 미흡함과 기획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기 위해 연합수련회를 조직하는 등 각 지역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전망을 발견할 수 있다.

■ 축제위원회 조직



- (1) 축제위원회는 주최하는 단체의 대표와 실무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행사 계획 수립, 담당자 선정, 장소 섭외, 재정 관리 등과 관련한 행사를 총괄한다.
- (2) 축제학생위원회는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선정된 학생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축제의 기획과 홍보 등 실무와 관련된 분과를 두어 활동한다.
- (3) 사무국은 축제 업무를 총괄, 조정, 진행한다.
- (4) 총무국은 본 행사 전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의 조달과 지출, 회계 업무를 총괄한다.
- (5) 기획분과는 추진 전과정에서 기획, 조정한다.
- (6) 홍보·섭외분과는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총괄 진행하며 장소 및 담당자 등의 섭외를 담당한다.
- (7) 조직·정보 분과는 각종 실태 파악과 축제 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조직하며 관리하며, 축제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고 온라인 상의 모든 활동과 정보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 축제위, 학생기획단, 동아리 대표자 연합 수련회 <축제, 사랑, 별 그리고 사람들>

첫째날 6월 5일 (토)				
시 간	프로그램명	장 소	내 용	비 고
15:00	집결(순천대학교)	순천대 정문	인원 점검	
15:30~17:00	출발 및 이동	순천→백운산밸리		
17:00~17:20	방배정	백운산밸리		
17:20~18:00	자유시간	마당 및 수영장	위원회 대 기획단 친목 경기	
18:00~20:00	저녁 식사 및 휴식	뒷 마 당	개별 취사, 휴식	
20:00~22:00	축제 영상 상영 및 뒤돌 극장	뒷 마 당	○ 5회 축제 영상 상영 ○ 영상제 우수작품 감상 ○ 5회 기획단 소개	
22:00~22:30	자유시간	뒷 마 당	자유롭게 대화하기	
22:30~23:30	[기획단/동아리대표회의]	숙 소	○ 제6회 청소년축제의 방향과 개요 ○ 동아리박람회 협의(동아리대표자) ○ 기획단 구성의 방향(기획단)	
23:30~24:30	분임토의	숙 소	분임별 토의	
24:30~06:30	정리 / 취침	숙 소	○ 정리 / 취침	
둘째날 6월 6일 (일)				
06:30~07:00	기상 및 주변 정리		아침 운동과 산책	
07:00~08:30	아침 식사	숙 소	식사, 휴식	
08:30~09:20	분임토의 결과 발표	숙 소	○ 분임토의 결과 발표 ○ 반성과 정리	
09:30~12:30	[우리의 멋과 향을 찾아서]	차박물관 및 최창판덕, 섬진강 일원	○ 매암차박물관 및 최창판덕 등을 통해 전통의 멋과 향을 느껴보기. ○ 섬진강변 백사장 축구경기	
12:30~14:30	점심 및 이동		○ 즐겁게, 활기차게	
14:30~16:00	순천대 도착	정 문	정리 및 해산	

3. 일정잡기

[사례 1] 울산 행사

9월초	74돌 학생의 날 행사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됨 (중등강남동서부지회)
9월 18일(목)	1차 기획단 모임 가정(사립지회 결합, 동해민속예술원결합) -기획안 1차 검토, 회의 정례화
9월 25일(목)	2차 기획단 모임(김중복생 결합, 최종 기획단 9명 확정) 사립지회(1명), 중등강남동서부지회(3명), 함께(4명), 동해(1명)
10월 2일(목)	3차 기획단모임 (기획안 확정, 초청연극 확정, 역할나눔, 영상결합)
10월 7일(화)	포스터 전단 나눔, 홈페이지 완성, 연극표 나눔
10월 11일(토)	1차 청소년 기획단 모임 가정(15명 참가)
10월 18일(토)	2차 청소년 기획단모임(17명참가)-역할 나눔
10월 25일(토)	참가동아리, 청소년 자봉단, 청소년 기획단 전체모임-80명참가
10월 30일(목)	6차 기획단 모임-최종점검
11월 1일(토)	74돌 학생의 날 기념 동아리 한마당 진행 풍물마당,댄스마당,댄스마당,참여전시마당,이동상당실, 청소년자유발언대,캐리커처그리기
11월 2일(일)	교사학생마라톤대회, 학생의 날 기념식, 초청마당극

[사례 2] 서천 행사

구분	일시	협의내용
1차협의	9월30일	행사주체 : 전교조 서천지회, 뉴스서천 행사후원 : 서천군청(예산지원), 서천교육청(각 학교에 협조공문발송) 행사내용 : 10월2일 청소년잔치 추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행사협조 : 청소년상당실

2차협의	10월2일	행사내용 결정 및 역할분담 - 도미노 쌓기 경연대회(도미노게임) - 협력하여 주어진 문제 해결하기(비밀의 방) - 레크레이션
3차협의	10월7일	행사일시결정 : 10월26일(일) 행사장소결정 : 서천중학교 강당 및 소운동장 행사역할분담 : 사회, 진행교사, 심판교사, 준비물 담당 교사 레크레이션담당자 섭외
4차협의	10월14일	홍 보 : 뉴스서천(신문광고 2회, 현수막설치 두 곳), 각 학교 분회장 및 조 합원의 학생대상 홍보 시상기관 확인 : 군수표창 준비물확인 : 담당교사 도우미학생 선발 : 서천여고, 장항공고
5차협의	10월21일	행사당일 시나리오 점검 행사장소점검

[사례 3] 순천 행사

연번	추진내용	일정	주관/담당
1	·축제위원회 구성 및 방향 논의	2.22.	축제위원회
2	·축제위 정기회의 1차~10차	2.12~12.19	축제위원회
3	·축제위 실무위원회 1차~30차	2.17~12.22	축제위원회
4	·기획단 회의 1차~10차	3.10~12.22	학생기획단
5	·【01】 6회 축제 설명회	4.28.	축제위원회
6	·【02】 2004 '함께' 달리기 대회	5.15.	축제위기획단
7	·【03】 축제위원회/학생위원회 연합수련회	6.5.~6.6.	축제위기획단
8	·【04】 세계청소년대권도선수권대회 결합	6.12.~6.18.	축제위기획단
9	·【05】 동천 벽화 '함께' 그리기	8.2.~8.15.	축제위기획단

10	· 【06】 체육제(축구/3.3농구)	9.18.~9.19.	축제위원회	
11	· 【07】 청소년 미술제	10.22~10.24.	축제위원회	
12	· 【08】 청소년 토론회	10.23.	축제위원회	
13	축제 행사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신청/접수	10.1~10.25	축제기획단
14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및 부착	10.10.	축제기획단
15		·학생회/동아리대표/자원봉사자연석회의	10.16.	축제위원회
16		·거리 홍보활동	10.20.	축제기획단
17		·초청장 발송	10.22.	축제위원회
18		·축제위원회 추진 상황 점검	10.24.	축제위원회
19		·현수막 제작 및 설치	10.24.	축제위원회
20		·무대 설치 및 행사장 준비	10.29.~30.	축제위원회
21		·동아리 부스 설치	10.30.	축제위원회
22		· 【09】 6회 순천 청소년 축제 본행사 (동아리박람회/무대공연/참여행사)	10.30.-10.31.	축제위원회
23		·축제 평가 및 결산	11.24.	축제위원회
24		·자원봉사단 추후 활동	11.27.	축제기획단
25		· 【10】 청소년 영상제	12.18.	축제위원회
26		· 【11】 청소년 열린음악회	12.19.	축제위원회
27	·[주관 단체] 송년의 밤	12.19.	축제위원회	
28	·축제 자료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2.18.	축제위원회	
29	·제 7회 축제 행사 장소 계약	2005년 1월	축제위원회	
30	·제 7회 축제를 위한 대화마당 준비	2005년 2월	축제위원회	

3. 학생의 날 행사 사례

1. 공연 및 문화행사
2. 전시 및 참여마당
3. 토론회 / 발표회

공연 및 문화행사

서울 청소년이 주인이다 본행사

■ 취지

학생의 날 주간의 모든 행사를 모아내는 자리입니다. 학생의 날 기념식으로 시작하여 학부모, 교사들의 축하무대, 청소년을 빛낸 청소년 선정, 청소년이 원하는 세상, 청소년 10대 요구 발표 등으로 이어지는 기념공연은 행사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노력과 주장을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 프로그램

- ✓ 74주년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축하
 - 학생의 날 소개 영상 / 기념식 / 교사·학부모 축하 메시지 전달 / 축하
- ✓ 축하공연
 - 러브홀릭, 레이저본, 타카피, 자전거탄 풍경, 해웃음(교사노래패), 엑기스(청소년

랩팀), 학생연극공연, 풍물공연

✓ 청소년 10대요구발표

· 청소년이 원하는 세상 (애니메이션) / 청소년을 빛낸 청소년발표 : 2003년 학생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 청소년 스스로의 자치활동을 보고하고 평가하며, 과거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

군산 2003 군산청소년 박람회 공연마당

■ 기념 및 공연

✓ 추진일정

- ① 신청자 접수: 2003년 9월 25일(목) ~ 10월 15일(수)
 - ② 분야: 댄스, 노래, 보컬연주, 수화, 영상작품 등
 - ③ 오디션: 10월 25일
 - ④ 게스트 섭외: 10월 20일까지 완료(초청대상 - 지역 동아리)
- * 참가팀에 기념품 등을 지급한다.

✓ 기념 공연 프로그램

- 개회 선언 → 본 축하공연(노래, 댄스, 보컬연주, 수화, 영상작품 등) → 폐회
 - 이벤트 섭외
 - 학생문학작품(시,소설) 공연장 앞 전시
 - 사회자 학생 2인
- * 관람자에게 경품 추첨(자전거 5대) 있습니다.

■ 2003 군산 청소년박람회 문화기행

✓ 목적

- ①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② 체험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내용적 토대를 구축한다.

- ③ 정서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문화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유도한다.
- ④ 소비적인 여행이 아니라 주제가 있는 기행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
- ✓ **추진방침**
 - ① 지역의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다.(버스: 2대, 지도교사 6인)
 - ②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공연 및 전시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연극관람 1편)
 - ③ 추후 학생의 날 문화기행을 상시적으로 계획, 운영한다.
 - ④ 학생들의 자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 ⑤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기행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 ⑥ 각 학교별 참가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조직한다.(각 학교별 3인 정도)
- ✓ **추진 일정**
 - ① 신청자 접수기간: 2003년 9월 25일(목) ~ 10월 15일(수), 약 80명
 - ② 10월 21~10월 30일 자료집 제작
 - ③ 기행실시: 11월 2일(일) 08:00~22:00
 - ④ 기행참가비: 중식 및 기타(10,000원)
- ✓ **예산: 150만원**
 - 차량비: 500,000원(250,000원 * 2대)
 - 관람료 및 자료집 제작, 간식비: 1,000,000원

순천 문화축제 '설렘, 꿈, 바람, 희망, 사람들'

■ 동아리 발표 대회

- ✓ 시간: 11월 8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 무대: 메인무대를 40평 설치하여 공연 실시
- ✓ 출연 동아리
 -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 후 영역 별로 심사하여 부스 공연이 가능한 팀을 우선 출연시킴 (동아리 부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연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리는 9일 오전에 시간을 마련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

- 공연 준비 때문에 적어도 10월 15일 안에는 출연팀이 확정되어야 함.
- 출연팀은 공연 후 약간의 사례금을 지급함
- ✓ 사회: 기획단 중 1명, 위원회 중 1명
 - * 초청 가수: 'The 자두'

청주 제2회 청주청원 청소년 문화 한마당

■ 문화마당 - 기념공연

- ✓ **취지**

기념공연은 그동안 갖고 닦은 청소년들의 개성있고 창의적인 노력과 주장을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기념공연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와 민주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상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 **프로그램**
 - 일시: 2003년 11월 1일(토) 18시~20시
 - 영상연극방송 마당, 보컬마당, 사물놀이·춤·노래·악기연주 등 공연마당

■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청소년 단축 마라톤 대회

- ✓ **취지**

광주학생운동의 진취적인 기상을 기념식과 마라톤이라는 형식을 통해 담아내는 자리입니다. 기념식은 청소년현장 낭독, 대회사, 축사, 축하공연, 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지며, 특히 마라톤은 개인의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단체(반별, 동아리별) 참가를 통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친구들이 서로 힘을 합쳐 뛰어야만 완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쟁과 소외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느껴보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 ✓ **프로그램**
 - 참가 예상인원: 1,000명 정도(학생·교사·학부모)

- 일시 : 11월 2일(일) 오전 10시 ~ 13시 30분
- 구간 : 남학생 5.2Km코스(롤러스케이트장 - 제2운천교 - 롤러스케이트장)
여학생 2.6Km코스(롤러스케이트장 - 흥덕교 - 롤러스케이트장)
- 참가방식 : 학급별(10인 이상), 학교별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 기념품 : 기념 티셔츠
- 행사 준비 : 진행 요원 50명, 기념품, 차량통제, 구급품 및 구급차 등
- 수상 : 완주 기준으로 급별, 성별 최대 참가 학급동아리, 최대 참가 학교
- 시간 : 10:00 - 10:30 접수(등록) 확인 및 티셔츠 배포
10:30 - 11:30 학생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 준비운동
11:30 - 12:30 마라톤
12:30 - 13:30 시상식 및 정리마당(공연 등)

울산 2003 청소년 축제 한마당

■ 세부일정

- ① 74돌 학생의 날 기념식
 - 일시 : 2003년 11월 2일 일요일 15:00
 - 장소 : 울산대공원 야외공연장
 - 내용 : 여는공연/목념/내빈소개/기념사/축사1/축사2/청소년선언/다같이 합성
- ② 초청마당극
 - 일시 : 2003년 11월 2일 일요일 15:00 ~18:00
 - 장소 : 울산대공원 야외공연장
 - 내용 : 민족 마당극패 큰들 초청마당극 "흥부네 박터졌네"
- ③ 동아리문화 한마당
 - 일시 : 2003년 11월 1일 토요일 15:00 ~20:00
 - 장소 : 울산대공원 야외운동장,동문광장,야외공연장

- 내용 : 개막행사 / 댄스마당 / 풍물마당 / 밴드마당 / 전시마당 / 참여마당 / 대회마당 / 이동상담실 / 폐막행사

④ 캐리커처대회마당

- 일시 : 2003년 11월 1일 토요일 15:00 ~18:00
- 장소 :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접수
- 내용 : 2003우리를 가장 자랑스럽게 한 인물/2003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인물/가장 좋아하는 우리학교 선생님 (당일시상)
- 시상 : 1:2:3등 (상장, 상품시상)

⑤ 74돌 학생의 날 기념 2003 교사학생 단축마라톤대회

- 일시 : 2003년 11월 2일 일요일 09시30분(사전접수, 당일접수)
- 장소 : 울산대공원
- 내용 : 종 목(개인, 단체:교사1인포함 5인이상)/경주구간(경주구간은 남, 단체 5km, 여자 5km)/시상내역(단체상 1:2:3, 개인상 1:2:3:4:5)

■ 행사내용

① 축사는 남구청장과 노옥희 교육위원이 하였다. 남구청장은 어려운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요지의 축사를 했다. 그리고, 노옥희 교육위원은 학교내에서의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우리선생님들이 일정부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이를 가장 잘 해낼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학생들임을, 학생들이 깨우쳤으면 하는 바램을 담은 말을 복장과 두발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지워서 말함으로써 축사를 의미있게 해냈다. 청소년 선언은 울산 청소년 한마당 준비를 위한 청소년 기획단에 참여했던 성광여고의 박인경양과 성신고의 학생이 했다. 물론 이들이 대표성을 지니느냐의 문제와 이것과 관련지워서 선언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 청소년의 요구와 바램을 담아냈느냐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지만 그들 스스로 청소년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선언의 형식으로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② 청소년 동아리 문화한마당은 댄스 / 밴드 / 풍물 / 참여 / 전시마당과 폐막공연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졌다. 이들 마당 중 전적으로 동아리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치루어진 것은 댄스마당과 밴드마당이다. 댄스와 밴드마당의 활동성은 현재의 대중문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즉, 이들 마당의 동아리의 경우는 이번 학생의 날 기념을 위한 마당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우리 청소년의 관심도 이러한 부

분에 집중되고 있다. 어쨌든, 이들 마당의 경우는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많은 관객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마당을 만들어내었다.

③ 풍물마당의 경우는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속에서 일구어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풍물마당 담당을 한 '동해'에서 단위학교의 풍물동아리 지도교사와의 접촉을 통해서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특히, 애리원의 지체 장애인 시설 친구들의 참여로 색깔있는 공연을 만들어내었다. 전체행사속에서 풍물마당의 자리매김을 우리 청소년의 풍물 관련 이해와 관심부족을 우려, 첫째날 개막식 직후 마당을 배치했었는데, 이러한 구도는 공연관람을 강제하는 성격을 지녀 무리수를 떠었다는 반성이 있었다. 오히려, 참여마당이나 전시마당 주변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풍물소리를 접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④ 참여마당의 경우 여러 가지 마당이 펼쳐졌었는데, 단위학교의 동아리 중심의 마당보다는 교육문화, 청소년봉사단체에 의해서 구성된 청소년 동아리의 비중이 많았다. 마술과 코스프레, 천문동아리의 경우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동상담실, 매직풍선, 얼굴그림그리기, 7942차 판매, 쪽자만들기, 스텐실등은 청소년 단체의 지속적 활동으로 구성된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광주 청소년 평화 축제

■ 연극·영상제

✓ 취지

-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통해 5·18의 소중한 자산인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는 나눔의 장
- 가정, 학교, 사회라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평화로운 일상을 재발견하고, 영상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기회의 장
- 청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

✓ 사업개요

- 주 제 : Talking About Peace, Change of the world, 너와의 평화를 꿈꾸며
- 일 시 : 2003년 11월 1일(토) 14:00 ~ 18:00
- 장 소 :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 방 식 : 비경쟁부문으로 참여방식을 도입
- 주 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 주 관 : 광주청소년평화축제위원회, 광주영상미디어센터
- 후 원 : 청소년영상미디어센터

✓ 진행일정

일시	소요시간	세부내용	비고
14:00-15:20	80분	1> 너와의 평화를 꿈꾸며(20분) - 송의중학교 '풍물' 프로젝트 휴식시간 : 10분	연극분야 대동홀
15:20-15:30	10분	2> 우리언니, 박금희(50분) - 전남여상 '토방' 프로젝트 휴식시간	연극분야
15:30-16:45	75분	3> 반전·평화인권 영상제(15분, 1편) /개막제 - 광주정보고등학교 영상반 우리들의 평화는 어디에!!	영상분야
16:45-17:00	15분	4> 반전·평화인권 영상제(15분, 4편, /60분) 학생작품 상영 - 청소년영상제 출품작 휴식시간	영상분야
17:00-17:50	50분	5> 반전·평화인권 영화제 - 15분, 3편 /50분 3부> 학생작품 상영	영상분야

✓ 부대행사

일시	소요시간	세부내용	비고
14:30-15:00	30분	디지털로 세상을 잡아라!!	대동홀 앞
연극제 행사전		PEACE IN PAPER(너에게 난)	
15:20-16:30	10분	휴식시간	휴식시간

16:30-17:45	75분	소회의실 1 / 애니메이션<환경애니메이션> - 시상사 작은학교 홍보부스와 함께	부스설치
		소회의실 2 / 다큐멘터리<이주노동자 다큐> - 송원여자정보고 홍사단 아카데미	부스설치
17:45-18:15	30분	휴식시간 영상제 퀴즈쇼!!	대동홀 앞

✓ 예산 계획

품 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운영비	운영자회의비	6명	3회	5,000	880,000
	선정위원 회의비	12명	4회	5,000	
	출장비(서울, 작품섭외)	2명	1회	80,000	
	퀴즈상품	개		100,000	
	부대행사	팀(곳)	2	100,000	
	행사촬영(테입구입비)	개	2	20,000	
	영상물제작 강사비	명	1	50,000	
초청작품 상영비	제작자 초청비	편수	6	50,000	820,000
	일반작품상영비	편수	1	300,000	
	작품복사비	편수	6	10,000	
	재료구입비(VHS)	개	20	3,000	
	재료구입비(6mm테입)	개	20	5,000	
홍보비	현수막제작비	개	3	50,000	600,000
	포스터	부(권)	1,000	350	
	우편발송비, 택배비			100,000	
연극제 운영비(전남여상, 송의중)	팀	2	100,000	200,000	
사무실 사용료					
총 액			2,500,000 (행사지원비)		

■ 락밴드 및 댄스 공연

✓ 취지

· 청소년 평화축제의 개념을 공연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보다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공연

✓ 행사내용

1. 락밴드 2팀(대학연합밴드, 청소년밴드 각 1팀)
 - 브레쓰리스 : 2003년 광주전남대학가요제 은상/ 2003년 경주엑스포 전국대학락경연대회 대상
 - 청소년 밴드
2. 댄스2팀
 - 비상 : 광주 브레이크 댄스팀
 - 정석패밀리 : 광주 힙합 댄스팀
3. 사회자
 - 이희승(옥과고 개그동아리 대표, 작년 평화축제 사회자)

✓ 준비물

- 드럼/ 기타, 베이스앰프 필요함
- 음료수나 물 준비
- 별도의 공연행사프로그램 시간표 작성

■ 아름다운 노래 공연

✓ 주제 - 아이들 눈으로 본 평화

✓ 준비단체 - 참교육학부모회

✓ 행사내용

- 아름다운 참교육학부모회의 소모임의 하나로 7세부터 10세까지의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아이들이 쓴 글에 곡을 붙여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활이 노래가사 속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 아이들의 눈으로 본 평화, 아이들의 눈으로 본 어른세상, 아이들의 눈으로 본 전쟁들을 소재로 한 노래를 부릅니다. 잘 부르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노래에 실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 그만큼 감동이 함께 합니다.
- 23명의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 15분에서 20여분동안 5곡 정도의 노래를 할 예정입니다.

✓ 준비물

- 스탠드마이크 10여 개(많을수록 좋다)-울동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탠드 마이크여야 함 / 앰프

고성 학생의 날 기념 제5회 고성청소년 문화한마당

■ 청소년 영상제

- 1) 일시 및 장소 ; 11월 5일 ~ 11월 9일, 고성 문화의 집
- 2) 참가분야 ;
 - ▶ 비디오를 이용하여 촬영한 5-10분 분량의 학생들 순수 창작 작품
 - ▶ 내 용 ; 자유 (사회 미풍 양식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
- 3) 참가신청 ; 10월 26일까지
- 4) 작품 제출 ; 촬영작품 및 명단=>고성지회 홈페이지<<http://kngs.ktu.or.kr>>이용
- 5) 문 의 ; 고성여고 이철현(016-835-8315), 지회 홈페이지 이용
- 6) 상영시간 ; 매일 오후 5시 30분, 6시 30분 일일 2회 상영
 - * 시상 계획은 추후 별도 공지

■ 청소년 연극문화 한마당

- 1) 일시 및 장소 : 11월 10일(토), 오후 3시, 고성여고 강당(체육관)
- 2) 참가부문 : 연극, 촌극, 모노드라마, 사물놀이
창작댄스, 독창, 중창, 기악, 교사찬조출연
- 3) 참가신청 : 10월 26일까지
- 4) 접 수 : 소정양식에 의거 지회 홈페이지< <http://kngs.ktu.or.kr> >이용
- 5) 문 의 : 고성여고 이철현(016-835-8315, 지회 홈페이지 이용)
- 6) 음향 및 조명은 주최측에서 준비 (단 대사 연기는 육성으로)
무대 및 소품은 동아리 자체에서 준비

전시 및 참여마당

서울 74동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이 주인이다

■ 취지

'학생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나 단위에게 각 마당을 주고, 부스를 설치하여 단체나 단위에 대한 소개 및 홍보·선전활동 등을 하며, 다양한 참여행사를 운영하여 '학생의 날'에 참여한 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제공합니다. 거리행사를 통해서 학생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좌석에 앉아서 준비된 공연만 구경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온 다양한 활동을 펼쳐보임으로써 전부가 학생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

- 학생마당 : 학생의 날 역사 및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소개하는 마당
- 교사마당 : 통일, 인권, 환경 교과위 마당
- 학부모마당 : 학부모회 활동 소개 및 차별문제에 대한 활동 소개하는 마당

<학생, 교사, 학부모 마당 부스 내용>

단체명	부스설치 내용
C.Corea 운동본부	C코리아 사업 소개 및 서명 운동, 이라크 파병반대 선전전
참교육 학부모회	
전교조 서울지부	네이스 선전전
1318 바이러스	바이러스 홍보
전국 급식 네트워크	급식조례법 및 문제점 선전

<그외 참여 마당 부스 내용>

주제	부스설치 내용
전통놀이 마당	
파병반대 마당	설문조사 스티커판
청소년 5대요구 마당	설문조사 스티커판
먹거리 장터	김밥, 오뎅 등등



▶ 자원 봉사단 - 학생 구성, 100여명 정도

- ① 길안내, 화살표 붙이기
- ② 부스설치 및 거리제 꾸미기
- ③ 파병 관련 참여마당 진행
- ④ 청소년 요구사항 설문 진행
- ⑤ 먹거리 장터 판매
- ⑥ 민속놀이 진행
- ⑦ 거리 퀴즈(학날관련) 및 OX퀴즈 진행
- ⑧ 심리테스트 및 타로카드 놀이 진행

군산 2003 군산청소년 박람회

■ 장애체험

。 목적

- ① 청소년의 건전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한다.
- ②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도력을 함양한다.
- ③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④ 장애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극복하고 올바른 시각을 형성하게 한다.
- ⑤ 봉사활동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고 성숙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도록 한다.
- ⑥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애인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⑦ 자원활동 인적인프라를 구축한다.
- ⑧ 따뜻하고 열린 지역 공동체를 위한 지역환경 개선 및 의식 개혁의 계기를 마련한다.

。 진행 일정과 내용

- ① 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 복지회관 등 전문시민단체와 공동 추진한다.
- ② 체험방법은 3인 1조로 1팀이 휠체어, 시각장애, 목발 중에서 택일해서 체험하도록 한다.
- ③ 체험활동 신청자를 사전 조직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대상 - 군산시내 중·고등학생)
- ④ 사전 설문지(교육당일 작성제출, 체험후 설문지(10월 31일제출)를 배포하여 인식의 변화를 체크한다.
- ⑤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포상한다.(3인)
- ⑥ 10월 20일 ~ 10월 25일까지를 본 장애체험기간으로 설정한다.
- ⑦ 장애체험활동은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교육시간 및 체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 ⑧ 각 학교별 3팀 ~ 4팀 신청 가능

。 추진계획 및 일정

- ① 일 시 : 2003년 10월 18일 ~ 10월 25일, 1주간
- ② 참여인원 : 약 150명 (군산관내 중·고등학생)
- ③ 신청자 접수기간 : 2003년 10월 1일 ~ 10월 15일, 2주간
- ⑤ 사전교육: 2003년 10월 18일(토) 청소년수련원
- ⑥ 체험기간: 10월 20일 ~ 10월 25일

- ⑦ 체험수기 접수: 10월 31일까지 (시상내역: 지회장상, 문화상품권, 전교조 신문 등재 시상일정 : 추후 통보)

。 장애체험 사전 교육계획안 및 장애체험활동 계획안

1. 장애체험사전 교육안

소요시간	교육내용	준비사항
14:00~14:30	접수 및, 수화공연, 행사취지설명	수화동아리 (다솜섭외)
14:30~15:20	자원봉사에 대한 비디오교육	비디오 테잎 비디오 기기 (시청각기기)
15:30~16:20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	강의록준비
16:20~16:50	세트장애체험	안전요원 셋트사전설치
16:50~ 17:00	일정 정리 및 체험일자 확인 귀가	귀가지도

2. 장애체험 활동

- 학교활동 중 장애체험
- 장애체험 영역
 - ▷ 지체장애 : 휠체어, 목발
 - ▷ 시각장애 : 시각장애
- 관련장비 : (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확보된 장비
- 방법 : 학교 등하교시간 및 학내활동 중 장애체험
- 기간 : 팀별(3인1조) 1일 체험 - 오후 하교시 집에 귀가 중 체험 후 다음날 등교시 체험 후 다음 팀에게 장비 인계. 단, 시각장애는 수업관계로 등하교시만 체험하고, 다른 장애는 계속 활동
- 참여인원 : 학교생활 중 일일체험인원 - 99명
 - ▷ 휠체어 : 10개조 : 휠체어 10대 × (3명/1조) = 30명
 - ▷ 목 발 : 3개조 : 3조 × (3명/1조) = 9명(부목 및 압박붕대, 목발)
 - ▷ 안대 및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10개조 × (3명/1조) = 30명

■ 문화기행

。 목적

- ①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② 체험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내용적 토대를 구축한다.
- ③ 정서적 풍요로움을 경험하며 문화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유도한다.
- ④ 소비적인 여행이 아니라 주제가 있는 기행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

。 추진방침

- ① 지역의 중·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한다.(버스: 2대, 지도교사 6인)
- ②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공연 및 전시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연극관람 - 1편)
- ③ 추후 학생의 날 문화기행을 상시적으로 계획, 운영한다.
- ④ 학생들의 자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 ⑤ 자료집을 제작배포하여 기행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 ⑥ 각 학교별 참가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각 학교의 협조를 통해 참가자를 조직한다.
(각 학교별 3인 정도)

。 추진 일정

- ① 10월 1일 ~ 10월 15일 신청자 접수(9월 25일 각 학교 협조공문 발송)
- ② 10월 21 ~ 10월 30일 자료집 제작
- ③ 11월 1일 최종 점검
- ④ 11월 2일 기행실시
 - 。 기행 일정 및 장소 : 추후 확정
 - 。 예산 : 100만원
 - 차량비 : 500,000원(250,000원 * 2대)
 - 관람료 및 자료집 제작, 간식비 : 500,000원

■ 학생문학잔치

。 목적

- ① 학생들이 작품을 공모, 시상 및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꿈을 개발한다.
- ② 작품(시, 소설)을 매개체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③ 작품을 만든 청소년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킨다.

。 추진일정

- ① 원고마감 : 2003년 10월 15일(9월초순 학교 공문 및 포스터제작 발송)
- ② 영역 :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 시(시조) 3편이상



- 소설 : 원고지 60매 내외 또는 A4용지 12매 내외(글자크기 11포인트)

③ 시상내역 : 부문별 장원1명(10만원), 차상1명(5만원), 차하2명(각3만원) 또는 지부장상, 지회장상, 교육장 및 시장상 추진<부문별 계 21만원, 총계42만원>

* 단, 작품수준 여하에 따라 수상작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음.

④ 시상식 : 2003년 11월 3일(월) 기념식때 시상

⑤ 주관 : 국어교사모임

순천 청소년 축제 설렘, 꿈, 바람, 희망, 사람들



■ 동아리 박람회

* 운영 계획

- 대상 : 순천시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50개(선착순)
- 참여동아리수 : 동아리(선착순)

· 동아리 부스

- 1) 갯수 : 60개 설치(50개는 개별 동아리에 배정함, 10개는 축제진행용,방송안내, 영상연합, 페이스 페인팅, 준비실, 자원봉사단, 의료실, 휴게실 등)
- 2) 내용
 - 가) 크기 : 측면(2m), 전면(6m), 높이(2m)
 - 나) 전면은 열려 있고, 좌, 우 그리고 뒷면은 불투명 비닐천으로 막음.
 - 다) 부스마다 책상 1개, 의자 3개 비치, 전기시설

3) 동아리배치 :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끼리 분류하여 배치하는 방법이 동아리가 활동하는데 가장 효율적임. 부스배정은 신청을 마감하고 주최측에서 일괄 배정함. 배정 내용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축제 주제인 "설렘 꿈 바람 희망 사람들"을 큰 타이틀로 하고 그 성격에 맞는 동아리들을 배치할 예정임

4) 동아리 상설무대 운영 : 중앙 분수대 근처에 약 10평 정도 설치하여 사전에 신청한 각 동아리마다 활동시간 제공

5) 동아리 깃발 : 각 동아리마다 깃발 제작 및 설치

※ 홈페이지에 파일을 올리면 일괄 제작 예정임.

※ 깃봉도 색만 달리하고 일괄 제작함.

아. 전기시설

1) 전기용량 : 한국통신에 협조 공문을 전달하여 전기 지원 요청

: 각 동아리 전기사용량 파악

2) 전기시설 : 4회 때 사용한 시설들을 재활용하여 예산을 줄임.

자. 활동 지원금 : 참가한 각 동아리에게 격려와 지원의 뜻을 모아 사전에 약간의 활동 지원금 지급(각 동아리에게 50,000원씩 지급)

※ 11월 1일 토론광장 후 동아리대표자회의를 약식으로 갖고 지급함.



[2003 동천 벽화 함께 그리기] 평가서

- * 기간 : 8월 2일(토) ~ 16일(토)
- * 참가 : 순천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사, 시민, 기획단, 축제위원 등 250여명
- * 축하마당 : 8월 18일(월) 벽화 앞, 150여명 참가
- * 규모 : 130m×2m

동천벽화, 보름간의 아름다운 사랑

1. 취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간에 걸쳐 실시했던 [2003 동천벽화 함께그리기]는 2002년 벽화 사업의 연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그리고 5회 축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다소 일의 중간중간 험에 부친 점이 있었으나 대체로 예정되었던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애초에 구상했던 학생과 시민, 그리고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나 처음 시작에 막막했던 일을 해가면서 능동적으로 풀어가서 완성한 점, 그리고 기획단과 위원회가 함께 하는 첫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능동적으로 일을 배분해서 진행시켜 갔다는 점 등은 벽화가 주는 아름다운 감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원회 중 소수만이 참여하여 일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유동성으로 인해 일이 더디게 진행된 점, 기획단 중 소수만이 참여하여 진행한 점, 일관되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일회성으로 수정되고 변화된 점 등은 앞으로 해나갈 사업들에 있어서는 한번쯤 얘기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벽화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을 구상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은 일대로 엄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벽화에 대한 평가는 벽화 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겠지만, 길게는 축제 전반의 대중성과 지향성을 검토하는 일이 되었으면 한다.

2. 성과

03 벽화의 가장 큰 성과는 3,000점에 이르는 학생 참여 작품, 250명에 이르는 실제 봉사활동 인

원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느 행사보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130미터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가지게 되는 축제위원회와 기획단의 자신감, 축제위원회의 홍보, 새로운 공간개념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그 성과는 차후 축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02년 벽화와 더불어 청소년축제 홍보 효과가 큼

실제 작년부터 시작된 벽화사업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 공간적 한계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벽화 자체를 그린다든 사업에만 매몰되었을 뿐 추수적인 마무리에 미진하여 만족할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를 고려한다면 03벽화는 사업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다. 이번 벽화의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작년 벽화까지 일련의 작업으로 인식시켜준 점은 바람직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통한 청소년축제가 그동안 너무 청소년 중심의 사업으로만 인식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축제를 각인시키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벽화를 통한 관심의 증대는 시민 참여의 폭을 실제적으로 넓혀놓았고,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개별 행사에서 시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많은 학생 작품의 참여로 인한 언론 홍보효과

03 벽화의 큰 특징은 3,000여점에 이르는 학생들의 참여 작품과 연인원 250명(봉사 총 인원은 일별로 합산한다면 1,000에 이를 것이다.)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수의 참가로 저변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시민 이은호씨의 참여는 교사와 학생에만 매몰되어 있던 축제 사업에 시민 참여라는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러한 점이 부각되어 [연합뉴스] 나 [동아일보] 등의 중앙 일간지는 물론 지방 신문 4곳에 보도가 된 것은 물론 [오마이뉴스] 등의 인터넷 신문 그리고 지방방송이지만 [생방송 화제집중]을 통해 10여분간 T.V 매체에 방영된 것과 지방 T.V뉴스 2회, 라디오 생방송 2회 등 작년 2~3곳에 불과하던 언론보도가 대폭 늘어난 점은 괄목만만한 성과라 하겠다. 아쉬운 점은 보도자료나 사전 홍보가 다소 미흡하여 중앙매체인 KBS 전파를 타지 못한 점과 지속적으로 보도되지 못한 점, 결과물에만 비중을 두어 과정의 홍보가 다소 소홀했다는 점은 옥의 티라 하겠다.

3) 130미터에 이르는 대규모작업을 통한 기획단, 축제위 공감대 형성

실제 계획했던 100여 미터보다 실제 작업을 통해 130미터로 늘어난 점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졌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자기책임감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고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6월에 연합수련회를 통해 뽑힌 축제기획단이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처음의 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방대한 작업을 통해 기획단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만들어가는 효과적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축제위와 기획단간의 교류가 허물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대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4) 새로운 공간 개념 형성

어둡고 우범지역이었던 동천 다리 아래를 「희망로」라 명명하고 청소년과 시민의 공간으로 설정한 점은 축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주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03 벽화작업은 지역과 시민이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축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한다면 순천청소년축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의점

보름동안의 힘들었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늘 남는다. 방대한 작업과 많은 인원 등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해하더라도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아쉬운 점을 기록하면서 같이 논의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모두 빼고 향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만을 두서없이 나열하기로 하자.

1) 사업의 연속성 측면

애초에 벽화를 시작할 때 1회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다 면밀하게 벽화 사업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곳에서 시작하여 어느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 그려질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그려갈 것인가,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 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해갈 것인가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최소한 02 벽화 후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작업보다는 단순히 일을 마쳤다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그런 논의가 결과물로 남아있지 않아 03 벽화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업의 특수성들을 이해하더라도 보다 사업이 한 두 사람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구조는 축제위원회 중에서도 소수에게만 일이 편중되어 심하게 얘기하자면 근근이 버텨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이유로 애초 구상했던 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당일 내용이 바뀌고 프레임이 애초 기대한 것처럼 되지 못했던 점 등등은 사업의 연속성 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향후 5년 내지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간다면 그 공간

을 하나의 공간개념으로 설정하여 다양하게 사업을 집행해갈 수 있겠다.

2) 일정의 촉박함에서 비롯한 어수선험

실제 일을 해감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테라코타를 벽면에 붙이는 작업이었다. 그 작업이 진척도 느리고 실제 예상했던 3일보다 일주일이나 더 진행되었던 점은 실제 머리 속으로만 작업을 하고 벽면에 붙이는 작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벽을 깔고 다듬고 철수세미로 씻은 다음에 라인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일의 촉박함 때문에 한 번의 세척 작업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실제로 벽을 대충 다듬고 한 번 붙였던 작업에서 1/10 정도 작품이 훼손되었고, 다시 철수세미로 정리하고 나서 붙였던 작업 또한 제대로 붙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런 후에 코팅제로 입히고 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시일의 촉박함으로 애초에 구상했던 모양대로 정리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라 하겠다.

또한 그런 촉박함은 작품 중간에 들어갈 그림의 내용도 확정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작업이 끝나고 그 결과물에 심취하여 중간의 어수선험이 묻히면 안된다. 그런 어수선험이 봉사활동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나 교육, 심지어 기획단의 일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게 했던 점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는 일정이 촉박하면 그에 합당한 양의 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사업을 해야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문제는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지만 예산의 문제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한다.

3) 학생 동원 및 전문가 인력의 부재

많은 수의 학생이 동원되었지만 실제 일을 열심히 한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런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의 적절한 분배가 안되었기 때문이 가장 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행사에서든 학생들을 자원봉사로 동원하면 그에 합당한 일을 맡기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물론 자원봉사를 했던 학생들이 다른 어떤 봉사활동보다 힘들었다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맘에는 성이 차지 않는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너무 일에 매몰되다 보니 그러한 작업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부재로 인한 일의 방대함도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내년에 이 사업을 또 집행한다면 순천대학을 비롯한 대학생 집단, 고등학교 미술부를 중심으로 한 동아리 연합, 청년작가회 등의 지역단체, 중고등학교 교사 등의 다양한 집단이 최소한의 일을 나누어 맡게끔 건언해야 한다.

4. 제언

참으로 힘든 작업이었지만 힘든만큼 변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지는 아름다운 감동도 많다. 그렇지만 누구나 우리 마음과 같지 않기에 이 사업은 엄정하게 비판해야 하며, 그 비판을 검허하게 수렴하여 앞으로의 이정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제언을 하자. 위에 평가서에 부분부분 들어있기는 하지만 같이 얘기하고 난 후 최종적으로 다음 사업을 위해 남겨둘 예정이다. 04년 변화는 이제 조명이 환하게 밝혀진 우리의 공간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한다. 그런 의미로 아래 사항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사업 출발을 최소한 3~4월에 해야 하고 사전 협의가 축제위 내부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 예산 배분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해 윤택과 동일한 작업이라면 지금보다 예산이 늘어야 한다.
-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서둘러야 하며, 특히 중고등학교 미술동아리 구성을 통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기획단의 사업 집행 능력을 변화 이전에 기르도록 해야 하며, 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 사전에 변화 작업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등을 제작하여 사전 홍보에 힘써야 한다.
- 작업이 끝난 후 위원회와 기획단이 함께 수련회 등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충북 제2회 청주청원 청소년 문화 한마당

■ 전시마당

· 취지 :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참여하는 학생회 및 동아리에 각 마당을 주고, 부스를 설치하여 단체나 단위에 대한 소개 및 홍보·선전활동 등을 하며, 다양한 참여행사를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 한마당'에 참여한 많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제공합니다. 전시마당을 통해서 한마당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좌석에 앉아서 준비된 공연만 구경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해온 다양한 활동을 펼쳐 보임으로써 전부가 준비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 프로그램 - 동아리 부스 : 시화, 사진, 만화, 수채화, 유화, 조각 등 작품전
- 학생회 부스, 한마당준비위 부스 등



■ 체험마당

- 취지 : '청소년문화한마당'의 기본 취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마당을 설치하여 평소 체험할 수 없었던 도자기 만들기, 천연염색물들이기, 초상화 캐리커처 그려주기, 전래놀이 등을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문화와 놀이, 우리의 천연염료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한다.
- 세부 프로그램 : 물레로 도자기만들기, 천연염색물들이기, 초상화 캐리커처 그려주기, 전래놀이 체험 등

광주 청소년 평화 축제

■ 학생 평화 상징화 그리기 대회

· 행사 내용

1. 일 시 : 2003년 11.1(토) 13:00 ~ 17:00
2. 장 소 : 5.18 기념회관 앞 잔디광장(상무동)
3. 대 상 : 초등학교 5-6학년, 중, 고등학교 학생
4. 준비물 : 평화를 상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다양한 형식에 맞게 준비 (수채화, 만화, 판화 등)

5. 참가 형식 및 방법

- 평화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잘 그릴 수(표현)있는 형식을 본인이 선택하여 참가한다. 형식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심사함.
- 8절지에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을 다양한 형식을 이용하여 표현하며 제한

시간은 3시간

6. 시상내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시상함)

최우수상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 상품 : 10만원 (급별 1명 -3명)
 우수상 : 광주광역시교육감상 / 상품 : 5만원 (급별 2명 - 6명)
 장려상 : 전교조광주지부장상 / 상품 : 2만원 (급별 10명 - 30명)

■ 평화통일 자료 전시

1. 반전. 평화 자료 전시 - 학생들의 작품
 2. 북녘 방문 사진전 - 북녘산하, 북한학교 방문 활동
 3.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 - 친일파 사진전
- ※ 반전, 평화, 통일 관련 비디오 상영

■ 환경사진 전시

- 2003년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광주천 자연학교를 실시했던 행사 사진을 전시
- 프로그램 중 초등학교생이 직접 사진을 찍고 4가지 주제(사람, 풍경, 환경오염, 식물)로 만들었던 환경신문(우드락 크기)을 주제별로 전시 (작품 5개 - 이젤 5개)
- 광주천 생태학교에서 중학생들이 활동하는 작품 2개(이젤 2개)
- 광주천에서 활동했던 초등학교생들의 얼굴사진 20개

■ 교육만평 전시

- ✓ 주제 :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체벌금지 서명과 만평전시, 즉석스티커설문조사, 낙서판으로 이루어진다
-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서명을 받고 즉석스티커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솔직한 마음을 알아본 후 대안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벌 당한 적 있어요, 체벌 후의 심정, 체벌대신 다른 벌을 받는다면?)
- ✓ 준비물 - 책상(1개 이상), 의자, 이젤(5개정도) 우드락, 스티커, 홍보전단지, 서명용지, 낙서판(넓은 판자), 하드보드

■ 통일 등불, 통일 도미노

- ✓ 통일의 등불

-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 등불을 제작
- 다양한 통일의 생각과 소원을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디자인
- 행사장 곳곳에 통일의 등불을 밝힌다.

✓ 통일 도미노

- 도미노 작품을 창작하면서 통일세상 열어제치기
- 정성과 일심의 현장으로 나눔과 공동체의 삶을 체험

■ 노래자랑

✓ 행사내용

1. 일시 : 2003년 11월 1일(토요일) 오후 4시~6시(댄스파티 끝난 후)
2. 장소 : 518 기념공원 분수광장 특설무대
3. 내용
 - 노래자랑 참가신청 접수 (모란돌 홈페이지)
 - 대상(10만원)/최우수상(5만원)/우수상 2팀(3만원)/인기상 2팀(2만원)
4. 참가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청소년
5. 신청접수 : 모란돌 홈페이지(www.monandol.net)

✓ 준비물

- 음향/ 노래방기계[금영] 및 영상화면/ 마이크 3개 : 이벤트사
- 심사채점표 [이태민 준비]

■ 수제품 체험행사

- ✓ 행사내용 - 자신이 직접 만든 수제품을 판매하고 신세대 개미장터인 프리마켓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기존의 판매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소비자도 곧 생산자!'라는 컨셉으로 5가지 체험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체험행사

- 아트북 : 전통한지를 이용해 수첩이나 일기장 만들기
- 나무목걸이 만들기 : 죽은 나무를 이용하여 예쁜 나만의 목걸이 만들기
- 스텐실 : 여러 가지 소재의 평면에다 문양을 넣는 것
- 칼라믹스 : 고무찰흙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 풍선아트 : 풍선으로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 프리마켓

- 비즈, 아트북, 조각보, 스텐실, 인형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 및 판매

· 페이스페인팅 & 네일아트

- 얼굴과 손톱에다 화장품 도구를 이용해 평화메시지나 그림 그리기

· 캐릭터 판매 - 세종고/상무고

■ 평화 퍼포먼스

- ✓ **행사내용** -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모양에 행사 참여하는 학생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전시장 전역에 매달아 전시한다.
 - 비둘기모양의 색지로 행사장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비둘기 모양 하나하나에 참석한 학생들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게 해 다시 한번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낚시 줄에 비둘기 모양을 달고 만국기처럼 높은 곳에 매달아 비둘기들이 평화를 향해 날아가는 것 같은 형상을 만든다.
- ✓ **준비물** - 색상지, 가위, 스카치 테이프, 화이트 펜, 색 싸인펜, 낚시줄(굵은 것), 책상 3개, 천막 1개

■ 장애 체험

- ✓ **주제** :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 ✓ **내용** - 휠체어 면허시험장 운영 및 장애인 편의 시설 표준 설명
 - 일정 공간에 면허시험장을 설치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점자로 만든 면허증 교부
 - 면허시험을 체험하는 동안 장애물 중간마다 안내판을 만들어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한 교육
- <시각장애체험>
 - 안대와 흰지팡이만으로 정해진 구간을 이동(2인 1조 교대)
 - 목표지점에 도착한 후 소감을 말함
- <지체장애체험>
 - 다리를 묶고 정해진 구간까지 목발을 잡고 이동
- ✓ **준비물** - 휠체어, 경사대 등 운반차량(총 2회), 안대, 흰지팡이, 장애물 목발 등(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대여)

■ 만화 전시 및 체험

- ✓ **행사내용**
 - 1) 만화 속의 평화를 향한 꿈 --전시
 - * 평화가 담긴 만화 포스터, 장면 전시
 - * 평화를 해치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장면 전시
 - 2) 애니메이션 따라 배우기 - 컴퓨터 2대

3) 평화를 향해 선을 날려라 : 평화 만화 따라 그리기

- *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신이 꿈꾸는 평화로운 학교, 학생, 가정, 세상에 대하여 만화나 캐릭터를 그리는 자리
- * 풍자만화,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리기

■ 내 안의 평화 (평화 안으로부터)

- ✓ **내용** - 각 각의 크기가 같은 부스(2개)를 설치한다.
 - 1) 부스
 - 어두운 느낌의 색을 칠한다.(검은색)
 - 벽과 바닥을 거칠게 한다.
 - 떠드는 소리, 자동차소음, 비명소리, 시끄러운 음악 등 각종 소음을 동시에 들려준다.
 - 8분 정도의 명상 시간을 갖는다.
 - 2) 부스
 - 밝은색을 칠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벽지나 그림을 이용하여 벽을 꾸민다.
 - 바닥을 푹신하게 한다.(앉을 수 있도록)
 - 클래식과 마음의 명상이 가능한 음악을 들려준다.(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소리 등을 들려줌)
 - 3) 평화레포트(스티커 조사) - 양쪽의 부스를 체험하고 난 후 참가자가 생각하는 평화에 대한 느낌을 물어보고 이를 스티커로 표시하여 결과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고성 학생의 날 기념 제5회 고성청소년 문화한마당

■ 컴퓨터활용 경진대회

- ✓ **대회 목적**
 - 21세기 정보 사회의 선두 주자로서 중 고등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
 - 학생들의 컴퓨터 정보 이용 활성화 도모

✓ 행사 세부 내용

행 사 종 목	인터넷 정보 검색	게임왕 선발 대회
날 짜	2000. 11. 1 (목)	
장 소 및 시간	항공고 15:00 - 18:00	항공고 15:00 - 18:00
참가자격	고성관내 중 고등학생	
참가분야	종목별 중등부, 고등부 2개 분야	
참가인원	학교 예선을 거친 후	학교예선을 거친 후(2인 1조)
	중등부 : 학교당 4명 이내 (48명) 고등부 : 학교당 8명 이내 (28명)	중등부 : (16팀) -- 8학급이상 4조, 7학급이하 2조 고등부 : (16팀) - 학교당 4조
경 기 진 행 방 법	30분 동안 15문제를 출제하여 정답과 URL를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	20분 동안 토너먼트 식으로 실시하여 승자
문제출제 및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교육, 문화 등과 관련된 문제출제	네트워크상에서프로그램 설치
	<input type="checkbox"/> 국내/국외 사이트 구분없이 출제	프로그램명 : 스타크래프트
채점 방식 (순위 결정)	① 정답 횟수 ② 제출 시간 순으로 결정	승패 및 점수에 의해 결정
시상 계획	군수상(고등부)및 교육장상(중등부) 구분하여 시상 예정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군수상(고등부) 및 교육장상(중등부) 구분하여 시상 예정 최우수 1팀, 우수1팀, 장려 2팀
담 당 지도교사	양재만 교사 (경남항공고)	배재혁 교사 (경남항공고)
준비물	* 문제 제출 * 디스켓 80개	* 빔프로젝트 (4강전부터 사용) * 프로그램, * 학생 대진표 * 칸막이

토론회 / 발표회

서울 청소년이 주인이다

<학생회 활동 모범사례 발표회>

✓ **취지** : 학생의 날의 정신을 보다 풍부하게 기릴 수 있는 행사로 <학생자치활동>을 넓혀나가고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권리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학생회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모범사례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례 등 현재 학생회 실태를 그대로 모아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학생회 활동 발전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 **프로그램**

- 일시 : 11월 9일 12시-2시
- 장소 : 동국대학교 소극장
- 학생회 사례 발표대회 및 질의 응답, 시상식

경기 고양시 학생토론마당

✓ **취지** : 2003학년도 들어 각 학교는 보다 많은 수업, 보다 많은 강제가 최고선인양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보충수업, 강제 자율학습이 판을 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점 더 경쟁적인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가가 나서서 초등학생에게까지 표준화 검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각 학교는 마치 80년대 후반처럼 사설모의고사를 맹렬히 치뤘습니다.

개별학교에서 교사들의 미미한 저항이 있었으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지역단위의 문제이기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별 교사에게 이런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까?

우리는 이 해답을 학생들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해치는 제도와 구조, 학생들의 비판적 역사인식을 해치는 교육과정과 입시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교사만의 힘으로는 힘겨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체제의 학생들은 자치는 커녕 자치회의 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다 공부가 자료(교과서)의 암기와 등치되는 중등교육의 현실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감퇴시키고,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학생들의 단결권(학생회 구성권)조차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은 이런 '상태의 지양'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교육소비자주권론의 영향으로 그나마 있던 학생역량도 학교내 자치구조의 창출보다는 소비자로서의 권리확보로만 치닫고 있다는 생각에 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길러나감과 동시에 조직을 만들고, 연대하는 효과적인 틀거리를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 사업의 의의는 학생들의 단결 목소리를, 그러므로 인해 주변화 되고 소음화 되는 목소리를 열린, 공개된, 실천하는, 연대하는 목소리로 바꾸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 프로그램

- 일시 : 11월 8일 늦은 2시 - 5시
- 장소 : 고양시 교육청
- 주제 : 학습인권 - 강제야자보충 · 0교시

✓ 토론 방법

- 매년 교사 학생 토론 모임 운영
- 토론회 전 사전 토론 및 토론회 실무 기획
- 행사 당일 중앙 찬반 토론, 방청객과의 자유 토론



군산 2003 군산청소년 박람회

<2003 군산 청소년박람회 '참교육 포럼'>

주제 : '인터넷 소설' 어떻게 볼 것인가

중 · 고등학교 교실마다 '인터넷 소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진 인터넷 소설도 있습니다. 인터넷 소설 한두 권 읽어보지 않은 학생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한데도 학교와 교사들은 이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 어디서나 쉽게 눈에 띄이는 '귀여니'의 소설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터넷 소설의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또 이런 소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 언어 질서를 무시한 표기는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터넷 소설 현상'을 말해 주십시오. 이 현상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주십시오. 현상을 통해 본질을 읽어낼 줄 아는 학생들의 글, 그리고 토론 참여를 기다립니다.

● 원고 기준 : A4용지, 글자 크기 10포인트, 3~4쪽 정도(출력한 원고와 함께 원고 파일도 제출해야 합니다.)

- 원고 마감 : 10월 25일(토)
- 원고 작성 방법
 - 자신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문제점 파악, 원인, 분석, 대책 등을 서술하면 좋겠습니다.
 -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해도 좋습니다.

순천 청소년 축제 **설렘, 꿈, 바람, 희망, 사람들**

<청소년 토론광장>

1. 주제 : 내 남자(여자) 친구의 이야기
2. 기획 : 성인 : 변황우(제일대학 메카트로닉스학부 교수), 조연용(전남청소년종합상담실)
 학생 : 이지민(순천여고2), 신승용(순천공고2), 기수연(청암고1), 송명우(강남여고1), 정유나(제일고2)
3. 일시 : 2003. 11. 1.(토) 16:00-18:00
4. 장소 : 순천 KBS공개홀
5. 토론회 형식 :
 - * 패널 토의 + 포럼 형식의 결합
 - * 방청석과 역동적으로 연계된 토론 방식
6. 발제 및 토론자
 - * 인원 구성 : 사회 1 + 학생 6

7. 토론회 일정(안)

내 용	시 간	비 고
사회자 인사, 패널소개	3분	
영상 상영	7분	
발제	20분	한 사람이 10분씩 2명
토론	60분	
방청객 토론	15분	
토론	20분	
영상 상영	10분	
맺음말	5분	

청주 제2회 청주청원 청소년 문화 한마당

<학생 토론회>

- ✓ **취지** : 학생의 날의 정신을 보다 풍부하게 기릴 수 있는 행사로 <학생인권> 의식을 고양하고 학생의 권리와 역할을 찾아나가는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인권침해 사례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을 통해 학생의 인권의식을 높여나가고 학생인권이 침해 받지 않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 ✓ **프로그램** - 일시 : 11월 1일(토) 오후 5시 ~ 7시
 - 장소 : 청주교대 작은 세미나실(피아노실 옆)
 - 주제발표 : (가안)“우리가 미래의 주인이다.”
 - 종합토론 :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제언

4. 학생의 날을 위한 제안

학생의 날 행사가 이제 지역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은 다양하지만 학생의 날 행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 고민, 학생들과 학생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생각들은 많은 지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실천들은 학생과 지역의 교감, 학생과 교사의 공동실천, 학생들 스스로의 자각, 학생간의 연대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날 행사가 학생의 날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학생의 날의 의미는 행사를 통해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실천과 조직으로 나타나지 못해 행동의 날로서 학생의 날이 재현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행동의 날로서 학생의 날을 재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년 학생 활동의 총화로서 학생의 날 축제가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날 행사가 그 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지역 활동, 학생 관련 정책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함께 주최했던 학생회 사례 발표회는 이런 방향성을 살린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지회에서 이와 같은 고민이 행사에 담긴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순천, 대구 등에서 동아리 활동을 총화 해 축제를 만든 활동과 지역의 전문적인 단체들과 함께 동아리를 키워나가면서 조직화 한 사례 또한 참고할 만 합니다.

둘째, 학생의 날을 기점으로 학생·청소년의 요구사항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의제화 해야 합니다. 학생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되어 있고, 학생회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청소년

의 요구사항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일은 사고가 나거나 입시경쟁과 관련된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날은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이런 점에서 1318virus에서 진행한 인터넷 학생의 날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성 설문조사가 아니라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생·청소년 운동의 주체가 결합해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의 삶을 규정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 교사-학생이 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주체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학생청소년운동을 고민하는 많은 단위들이 학생인권예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교육정책의 큰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 때 학생인권의 개선만 이루어지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적인 시각에서 대안의 교육정책을 모색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와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학생의 날의 정신을 살리는 주요한 활동입니다. 범국민교육연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Anti 수능 페스티벌은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학생의 날 행사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 편에선 학생의 날 행사가 화석화되고 있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제 없는 학생의 날 행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서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날 행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최근에 주요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권, 평화 축제, 광주의 평화 축제는 학생의 날 행사가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지향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의 날 행사가 학생·청소년운동의 강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1회용으로 쓰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청소년의 조직적 힘의 강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학생회 조직이나 지역 청소년 단체와 연대해 청소년단체와 학생회 조직, 그리고 전교조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2003년 전교조 학생의 날 행사 일정

지부	주최주관	제목	내용		
			일시	장소	내용
광주	지부	학생의 날 기념 제 2회 청소년 평화축제	11. 1	518기념공원 518기념문화회관	전시, 체험, 연극 영화제, 공연
			11. 3	대구시 청소년 수련원	기념식 및 강연, 공연
대구	지부 + 우리 세상	제 51회 학생의 날 기념식 4회 대구 청소년 문화 한마당	10. 25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개막공연, 축제마당 등
			10. 26		교사공연, 토론마당 등
			11. 1		가요제, 축제마당 등
			11. 2		폐막공연, 동아리마당 등
부산	지부	학생의 날 행사	11. 1	정보원	학생인권토론회
			11. 3	각급 학교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5	촛불집회 장소	학생인권선포의 날 행사
서울	지부 + 희망	생태, 인권, 평화 영화제 제 74돌 학생의 날 기념 행사 - 청소년이 주인이다	10. 25	자양고 특별실 매동초 시청각실	영화제
			11. 1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영화제
서울	지부 + 희망	제 74돌 학생의 날 기념 행사 - 청소년이 주인이다	11. 9	동국대	기념공연, 거리 전시전 학생회활동 모범사례발표회 동아리마당, 청소년 NGO마당
			11. 2	관악 문화관	공연, 거리 전시 등
울산	지부	학생의 날 행사	12. 20	북구청	동아리 축제
			11. 1	울산대공원	동아리한마당
			11. 2		교사학생마라톤대회
			11. 22	동구청	동아리 축제
인천	지부 중등 계양 지회 중등 연수 지회	강좌 학생의 날 기행	11~	지부	세상을 위해 열린창 강연
			11. 2	중등 계양지회 부여문화관	역사와 문화 기행
		11. 1	옥련중학교	학생의 날 기념 축구대회	

지부	주최주관	제목	내용		
			일시	장소	내용
경기	파주지회 고양중등 수원중등 부천시회	학생의 날 행사 학생의 날 행사 학생의 날 행사 학생 주간 행사	11. 2	서삼릉, 통일전망대	역사기행, 환경기행
			11. 14	고양교육청(예정)	학생 인권 토론
			11. 1-2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동아리 한마당, 전시, 연극
			10. 27	지회	기자회견
			10. 29	송내 북부역 광장	인권 촛불 문화제
경남	고성	제 5회 고성 청소년 문화한마당	11. 7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 한마당
			11. 7-8		환경 문화 전시회
			11. 8	철성중학교 운동장	학생의 날 기념 달리기
			11. 9	섬진강 일대	역사문화기행
			11. 1	밀양교육청강당	강연, 영화제
			11. 2	밀양대학교 체육관	길거리 농구대회
			10. 25	창원용지공원	락페스티벌, 거리 전시회
			11. 9	경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진주청소년수련관 다목적관	거북이마라톤대회 자전거 대행진 동아리 경연대회 청소년 영상제
			10. 25	마산 창동 사거리	거리전시회, 공연
경북	안동 울릉 문경 영주 영천	안동 청소년 문화 축전 2003 학생의 날 기념 축구대회 학생의 날 행사 학생의 날 행사 학생의 날 행사	10. 24-25	청소년 수련관	전야제, 문화공연, 전시, 참여
			11. 2	울릉초, 울릉중	축구대회
			11. 22	문경문화회관	동아리 발표회
			11. 3	영주시민회관	동아리 발표회
			12월초	미정	학생 음악제
			11. 1	청주교대	전시, 체험, 토론, 문화마당
충북	청주, 청원 충주 영동 음성 괴산 단양 보은 진천 옥천	청주, 청원 청소년 문화 한마당 충주 청소년 문화 한마당 학생의 날 기념 행사 학생의 날 기념 행사 학생의 날 기념 행사 단양청소년잔치한마당 우리들이부르는희망노래 보은 청소년 문화 한마당 진천 청소년 문화 한마당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2	무심천 놀러장	기념행사 및 마라톤
			11. 1	충주 청소년 수련원	전시, 체험, 길거리 농구 등
			11. 3	난계국악당 일원	기념식, 체험, 문화마당 등
			10. 31	청소년문화의집	문화한마당
			11. 1	한일중학교	예능한마당
			11. 2	남신초등학교	체육한마당
			11. 6	증평문화회관	기념식, 공연, 영화상영
			11. 1	군민회관 등	청소년영화제, 마라톤
			11. 2	군민회관, 단양중	기념식, 문화공연 등
			11. 14	보은문화예술회관 배틀공원	기념식, 마라톤, 공연 등
충북	진천 옥천	진천 청소년 문화 한마당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7	화랑관	기념식, 걷기대회, 공연 등
			11. 11		

지부	주최주관	제목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전남	순천지회	제 5회 순천청소년 축제 설렘꿈바람희망사람들	11. 1	KBS공개홀	여는마당, 토론광장
			11. 2		사이버게임대회 예선
			11. 8-9	금당 제2근린공원	본행사, 박람회, 전시회
	영광지회	학생의 날 기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영광생태탐험	11. 2	영광지역내 갯벌 습 지 일대	영광지역 생태탐험
	나주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 74주년 기념 학생의 날 기념행사	11. 1	남산시민회관등	학생의 날 기념 행사
	광양지회	74돌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2	각 지역별 장소	길거리 농구대회
	목포지회		11. 7-9		청소년 문화축제
	보성지회		11. 8		학생축제
	강진지회		11. 9		길거리 농구대회
	해남지회		11. 16		5대 5 축구대회
화순지회	11. 16		학생축제		
장흥지회	12. 6		청소년 문화제		
전북	군산지회		군산청소년박람회 다양함이 존중되는 열린 교육공 동체 만들기		10. 25
		11. 2		미정	문화기행
		11. 3-4		청소년 수련원	기념식, 공연, 마라톤, 참교 육 포럼, 학생문학제
	전주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1	전북대학교	공연, 마라톤, 문학미술시상
	익산	학생의 날 기념 문화행사	10. 30-31	송리문화예술회관	여는의식, 공연, 학술마당 등
			11. 1-2	중앙체육공원	전통문화, 참여, 영상
	임실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0. 14-24		글짓기 대회
			11. 1	지리산	산행대회
	부안	달리기 대회	9. 20		해추방을 위한 달리기대회
	장수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2		기념식 등
남원	학생의 날 기념 행사	11. 2	지리산	산행대회	
강원	인제지회	학생의 날 행사	11. 9	인제고등학교	공연, 체육행사, 재능발표
	영월지회	학생의 날 행사	11. 20	영월문화예술회관	중고생장기 재능자랑
	태백지회	학생의 날 행사	11. 14	태백 KBS 공개홀	동아리 발표
	강릉지회	학생의 날 행사	11. 3	대학로	청소년단체 연합 행사
	춘화중등	장학사업			장학사업

참고자료) 학생회 주최 학생의 날 기념 행사 사례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이 학교 학생회와 함께 한 74돌 학생의 날)

■ 준비과정과 평가

학생의 날 3주전부터 희망 학생회부서는 각 학교 학생회가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해보자는 취지의 모임을 가졌다. 15개 정도의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선 학생의 날의 역사에 대해 간단한 영상자료와 강연을 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하였다. (73돌 학생의 날 기념행사에서 상영한 역사 영상) 그 후, 이에 대한 각자의 소감과 더불어 학생의 날을 학생회가 알려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기념행사를 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의 날의 역사나 이를 기념하는 것에 대한 학생회의 인식과 반응은 대체로 반반 이었다. 깊이 있게 알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모임하기 전까지 11월3일이 학생의 날인지 몰랐다' 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고 또,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 형태로든 해보겠다는 학생회 임원이 있는가 하면, 학교의 상황을 봐가면서 해보겠다는 학생, 학교 안에 어려움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학생회도 있었다. 학생의 날에 대한 학교 현장의 교육과 배려가 아쉬운 시간이었다. (학생의 날 행사를 치룬 후 이에 대한 보수적인 학교당국과 일부 교사들의 반응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했다)

어떤 방식의 행사를 치러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통해 희망 학생회부서와 각 학교 학생회임원들은 이번 학생의 날을 기념할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어보았다. 하나는 학생의 날을 알려낼 수 있는 선전활동 - 유인물, 전시물, 방송을 기획해보자는 것이었다. 만화를 통한 역사 설명과 학생이 주인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계획해서 배포했던 모 학교의 사례가 학생회 임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또, 함께 보았던 역사 영상물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데 이를 방송 및 강당행사에서 상영하고 싶다는 학생회도 있어 희망이 후에 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청소년, 학생이 주인이라는 학생의 날의 의미를 살려 그 당시 학생들의 요구가 있듯, 현재 학우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설문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는 당장은 바꿀 수 없겠으나, 학우들의 의견수렴은 학생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이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해보자는 의미가 있었다. 세 번째는 이런 요구사항을 명

시한 버튼달기 운동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또,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학교라도 나름대로의 문구를 넣어 전교생이 버튼을 달아보라고 했다. 후에 어떤 학교는 행사당일 700명을 예상하고 1000개의 버튼을 제작했는데, 모자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버튼의 내용 중에는 급식 문제, 열악한 학교시설, 0교시 문제 등 민감한 내용들이 있었지만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버튼달기운동을 벌였던 학교 대부분은 교사, 학생들에게 잘 팔렸다(?)

기념행사를 해보겠다는 학생회 대부분은 어떻게 할지 견해를 딱히 가지고 있지 못했으나, 이 모임 을 통해서 아이템을 얻어간 학생들이 있었고, 또 일부 학생의 날에 대한 인지가 없던 학교도 그 중요함을 느끼고 해보겠다는 높은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해보겠다던 대부분의 학생회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어떤 곳은 유인물만, 어떤 곳은 버튼달기만, 또 어떤 곳은 유인물과 설문조사와 버튼을) 벌여내었고, 학우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며 선생님들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그렇다고 이번 행사를 그냥 넘어간 학교가 없진 않았다. 몇 학교는 이 행사를 두고 선생님들과의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학교 측과의 협의 없이 진행된 행사였다는 것(사실은 핑계라고 생각된다. 학생들의 의견개진에 대한 일종의 꾀죄죄를 적용한 것이다)을 이유로 징계문제도 오고갔다.(학생회장에게는 진술서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회가 모든 사업을 선생님과 협의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학생회가 학생의 날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권한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서글궜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그 학교의 학생회 활동은 자연스럽게 위축 되었다. 아쉬운 일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날을 자축하는 것을 가지고 학교 측과 일부 교사들이 왈가왈부하는 것,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이 있고, 아버이는 어버이날이 있듯이 학생들 너희들에게도 학생의 날이 있다고 설명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들을 모두 통제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교육현실. 75돌 학생의 날은 학생회가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회는 지금,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 유 인 물

“11월 3일, 학생의 날은 우리들의 날”

‘학생의 날’, 어떤 날 일까요??

74년전 이 때, 우리의 선배들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일어나 전국적으로 퍼진 항일학생운동을 우리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라 하죠.

이 운동은 광주중학교의 일본인 학생이 통한 열차에서 광주여고 보 여학생들을 회롱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는데, 감정적인 문제에서 머물러 있기보다 조선독립만세, 조선인 본위교육을 실시하라 등의 구호들로 근본적인 조선독립의 함성이 되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나선 우리 선배들, 참 대단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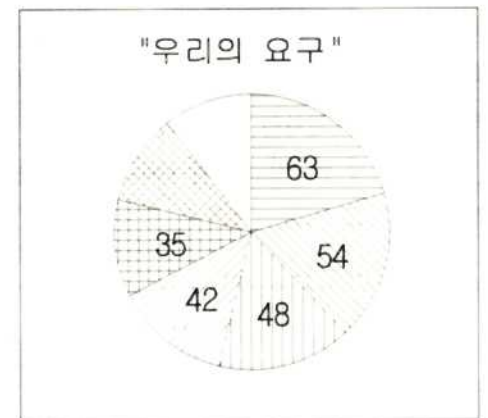


74년 뒤, 우리들은 과연???

지난 10월 29일 본교 1,2학년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설문조사 결과 (불특정 450명에게 5개 복수응답으로 설문하였습니다.)

1. 낙후한 학교시설의 개선(63%)
2. 용의복장과 두벌규정의 완화(54%)
3. 우리의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급식의 개선(48%)
4.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의 안정(42%)
5. 부담되는 수행평가 적은 수행평가(35%)
6. 높아져만 가는 사교육비의 감소(33%증은 삼자무늬)
7. 학벌위주의 사회현실 변화(32%-변칸)

등이 학우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서로를 소외시키고, 경쟁의 관계로만 만들어나가는 입시제도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을 누리지 못하는 온갖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의 바라는 바들을 이야기 하지 못한 채 그저 따라가기만 할 뿐입니다.

요구는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대안은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권익을 찾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무엇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낼 때, 학생회 역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우들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설문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학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학생의 날,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깁시다.

- 00고등학교 학생회

■ 라디오 연극 - 금천고등학교 학생회

1. 라디오 연극

학생의 날 정신을 알리기 아침방송으로 1929년 상황을 재연하는 대본을 짜고 현재 학생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내용의 라디오 극을 준비하여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2. 라디오극 대본

안녕하십니까? 한마음 학생회입니다. 여러분, 11월 3일 일요일은 학생의 날입니다. 선생님에게는 스승의 날이 있고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날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학생의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들의 날이고 축하받아야 마땅한 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낯설기만 한 학생의 날. 언제, 어떻게 학생의 날이 생기게 됐는지 저희가 라디오 극을 준비했습니다. 1929년 광주의 기차 속으로 한 번 가 보실까요??

라디오 극 대본 일부

등장인물 : 일본인 남학생 3명, 한국인 여학생 3명, 박기욱, 박준채, 후쿠다

칙칙폭폭~~ 기차소리가 들려온다.

(기차안)

일본남학생1(이하 '일남') : 조센징놈들이 타고 있군!! 헤헤헤...

일남2: 조센징 계집애가 있는데 가서 괴롭힐까??

일남1 : 그래, 그게 좋겠군. 힘없는 조센징 계집애들이라면 괴롭히기 딱이지.. 우하하하하하 (구두소리가 뚜벅뚜벅)

일남1 : 하잇! 와다시아 나까무라 데스... 우하하하하

조선여 : 왜 그러세요?

일남 1: 왜 한테 칠라고??

조선여 : 네??

(뺨을 때린다) 효과음 짹!!

일남 1: (떡살을 잡으며) 이런... 조센징..(손이 올라간다)

그 때 조선 여의 사촌동생과 그의 친구들이 이 광경을 본다.

박준채 : 네들 뭐야?? 왜 우리 누나 괴롭히고 난리야..

일남1 : 저 조센징들은 뭐야...

일남2 : 그러게.. 조센징 주에에 지금 어디서 대들어??

박준채 : 다시 말해봐!! 조센징?? (중략)

11월 3일... 광주.....

박준채: 그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하였으며 강제로 머리를 자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교육과 일제의 핍박 대해 이제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써 존중받기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다!!!!

■ 학생의 날 선언문 - 통영여자고등학교

□□ 아래 자료는 작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손으로 쓰여지고 낭독되어진 선언문입니다.

1929년 11월 3일은 청소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된 날이다.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던 이 땅의 청소년들.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목소리를 낼 줄 알

고 억압과 무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은 72년 전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젊음의 열기와 학생들의 분노를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주체적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2001년 11월 3일., 우리 모두는 또 한번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와 사회에서는 우리의 꿈을 펼치기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교칙,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참여 제한, 교육의 불평등과 서열화를 조장하는 7차교육과정, 인성교육보다는 대입만을 위한 교육체제는 학생들의 설 곳을 잃게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한다 !!

72년 전 광주에 울려 퍼진 학생들의 함성과 항거를 기억하며, 21세기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과 제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선배들이 그랬듯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우리시대의 문제에도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며 현재의 희망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우리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굳게 닫힌 입을 열어 72년 전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외친다.

하나, 이 땅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에 소신을 갖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자!

하나, 학생회와 동아리활동을 비롯한 자치활동의 활성화 지원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안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참여 와 발언권을 높이자!

하나, 학생들의 서열화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7차 교육과정을 반대한다.

하나, 우리 청소년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전쟁에 반대한다.

우리 학생들은 이미 주체적인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입시라는 경쟁이 존재하는 상막한 학교이지만 우리 친구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통영여고 학생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낡고 병든 생각에서 깨어나서 잘못된 교육의 피해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획일화된 학교라는 사회 속에 무엇을

향하는 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학생회는 학생의 편에 서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끌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옛날 4.19, 5.16사건에 앞장선 우리 선배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이상을 생각하면서 하나씩 이루어 가야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기회가 바로 학교축제입니다. 우리학교의 축제는 그동안 우리들만의 방향성과 개성을 찾기보다는 기성세대를 모방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학예발표회식의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학우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이는 설문지 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번 축제를 함께 즐기고 하나가 되는 장으로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우선 학교 축제의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축제 계획서에는 축제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학생중심 축제로 하되, 학생과 교사가 협동하여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 ②축제를 통해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애교심, 자율성, 협동심, 소속감, 책임감을 기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너무나 형식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말 우리 학생들 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이끌어 내며 하나로 어울려 지는 축제를 위해 방향을 잡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학우들은 모두가 어울려 지는 축제, 개방되고 열린 축제, 자유로운 축제, 우리를 위한 축제, 창의적인 축제, 통일을 생각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축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우리 학교 축제는 제한적인 참여로 인해 어울림이 없거나 보여주기 위해 외곡되어 진정한 주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거나 기성세대를 모방하는 우리 답지 않은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2003년 학생의 날 학교안 기념행사현황 및 자료 list

학교	기념행사내용	아이들, 교사, 학생회 반응	자료남기기
디고	· 버튼 배포(학생회명의인쇄)1,000개 "맛없고, 양적은 급식문제 해결하라" · 각 반에 대자보 - 다양한 의견 수렴 · 강당공연 - 학생의 날 재현 영상	· 자유발언대때 거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임 · 버튼반응 좋음 · 부정적으로 보는 교사도 있었지만 교사들에게도 좋은 반응 · 학생회 임원들끼리 촌극을 준비하	· 대자보 · 준비과정 녹화 테이프 · 촌극 대본 · 버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의 존극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입시, 학교문제 등등..) - 자유발언대 · 즉석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서 친해지고 좋아짐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버튼제작 · 교문앞 사랑&유인물&버튼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반응 좋음, "내년에 또해라" · 진술서 · 학생의 날 준비한 8명 좋은 경험을 했으나, 학교정계 사태에 분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 유인물 · 설문조사 · 영상찍음
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것이 알고 싶다' 영상상영 (못함) · 학생회장의 멘트와 영상상영 · 아침 방송 · 학생의 날 알리는 종이 계단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반응 좋음, 교사들도 대체로 긍정적임 · 준비과정이나 학우들의 반응보면서 학생회임원들 서로가 너무 좋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본받기 · 계단에 붙인 종이 · 버튼
신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2,000개 제작 배포 "살맛나는 학교로" · 영상상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각반 15개씩 배포 · 몰랐는데 알아서 좋았다. 반응 좋음 · 교사들도 좋아함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염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교 길 사진 만화 대자보+이젤 · 스티커 설문조사 · 교문앞 선전전 · 아침방송 · 쉬는 시간부터 조 짜서 반선전전 · 학날 정신을 알리는 선전물과 버튼 배포 · 교장실 찾아가 버튼 달아드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 고맙다, 너무 좋다. 학생회 너무 좋다, 잘한다 · 학생회 상황이 힘들었는데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임원들이 힘을 얻음. · 교장선생님도 버튼을 달고 다니심 - 축하메세지 "애들아 너무 사랑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영상, 칼영영상 · 사진만화 대자보 · 스티커 설문조사 · 선전물, 버튼 · 녹화 테이프
송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플렛 제작 & 배포 - 유래, 설문조사 왜 하게되었는지, 결과 · "우리는 인형이 아니예요", "청소년이 주인이다" 2종류 버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의 반응에 신나서 학생회업됨 · 일부 교사 반대했으나 교감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성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 유인물
성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제작 · 대자보 :3컷만화개시 · 스티커판 (급식,두발,화장지,수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물패가 돌린 버튼 때문에 안돌림 · 교사가 준비하는 학생의 날..다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 대자보 · 스티커판

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때 부스설치 (의견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0장중 20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설치나 20장 내용
송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제작 "자랑스런 송문인이 되자" · 유인물제작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인기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 유인물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상영 · 아침방송 및 회장 발언 · 유인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이 좋아서 힘받음 · 교사들도 좋아하고 버튼 가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튼 · 유인물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미꽃과 유인물 반마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
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인물 (가로세로 퀴즈>선물주기) (그림으로 학생의 날 유래) · 라디오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연극대본 · 유인물
금육 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문인사 · 역사대자보전시 · 선물주기 · 유인물(피즐,학날 의미 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대자보 · 유인물

* 이밖에도 개포고, 용화여고, 인현고 등 확인안된 학교들이 학생의 날 행사를 펼침 총 16개교

참고자료) 학생의 날 행사 참고 사이트

- ✓ 학생생활연구회(class.ktu.or.kr) 학생자치문화분과 지역축제방
 학생의 날 행사 자료 / 학생의 날 단양지회 / 학생의 날 원고 / 태안지회 학생의 날 행사 /
 부산 청소년축제반 / 청소년잔치 / 대구청소년문화한마당 / 순천청소년축제
- ✓ 전교조 자료실 학생활동방
 (http://pds.ktu.or.kr/topic_find.asp?level=2&code=0502&topic=학생활동)
- ✓ 전교조 참실위원회 학생의 날 준비 게시판
 (http://moim.ktu.or.kr/chamsil/userview/u_list.asp?cat_id=13)
 서산고등학교 / 2000년 학생의 날 행사(경주, 군포, 수원, 창원, 춘화, 태백, 부여, 대구, 군
 사지회) / 학생의 날의 의미 / 71주년 학생의 날 전교조 조합원 교선 자료집 / 학생의 날
 행사 참여(역할극 대본) / 학생의 날 활동 사례
- ✓ 희망 학생회 자료실
 (new.heemang21.net/board/zboard.php?category=25&id=stu_pds&page=1&page_num=1
 0&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
 금천고 방송극 / 송곡여고 학생의 날 / 학생의 날 기념제작 스티커 / 학생의 날 유래 / 풍
 문여고 / 언남고 / 73돌 학생의 날 성명서 / 73돌 대 토론회
- ✓ 전교조충북지부 학생의 날 게시판
 (http://www.cbktu.or.kr/zboard4/zboard.php?id=student2&page=1&select_arrange=head
 num&desc=asc&category=&sn=off&ss=on&sc=on&keyword=&sn1=&divpage=1)

- ✓ 울산 청소년 한마당
 (<http://hamkke79.com/student/main.html>)
- ✓ 인터넷 학생의 날
 (<http://www.1318virus.net/modules/news/?menu=a0305>)
- ✓ 광주학생독립운동
 (<http://www.ilgo.or.kr/independence/student.html>)
- ✓ 순천축제 (www.teenfestival.com)